

The expression of sex steroid hormone receptors by neoplastic cells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response of hormone therapy. Thus, the selection of treatment modality is often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receptors in tumor tissue. Various monoclonal antibodies of high specificity are now available for analyzing the estrogen receptor(ER). With the antibodies, biochemical enzyme immunoassay and immunohistochemistry using histologic sections have been used for ER analysis. We used fine needle aspirates from 15 human primary breast carcinomas for the analysis of ERs. The semiquantitative receptor values obtained in cytologic specimens correlated with those from histologic specimens well. The result of ER in fine needle aspirates were concordant with ER in histologic specimens in 93% of the samples.

Only three cases showed a little difference in staining intensity and percentage of positive cells. Our results showed a good correlation between the receptor values determined in cytologic smears and those determined in tissue sections. It is suggested that measurement of the ER in cytologic smears may be a reliable technique which can be performed on aspiration cytology samples.

9. 타액선 종양의 세침흡인 세포검사 63례의 분석 Cytopathologic Analysis of 63 Case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Salivary Gland Tumors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승숙, 박인애, 함의근

타액선 종양에서의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다른 장기에 비하여 그 빈도가 낮고 한 종양에서 양성 종양과 악성종양의 양상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때로 진단이 어렵다. 수술전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하고 경제적이며 위험도가 낮은 방법으로 점차 세포 흡인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타액선 종양의 세침흡인세포검사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90년 1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세포병리검사 총 68,791례 중에서 타액선의 세침흡인세포검사 총 63례에 대해 그 진단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63례의 진단을 살펴보면 다형성선종(20), Warthin씨 종양(8), 단형성선종(2), 점액표피양암종(3), 선양낭성암종(3), 선암종(1), 선방세포암종(1)이었다. 세포학적으로 어느 특정종양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양성 종양으로 진단된 경우로서 조직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예가 16례였고 비적합세포흡인이 6례였다. 그 밖에 세포학적으로 양성으로만 진단되었다가 조직생검에서 염증소견으로 확인된 경우가 3례였다.

전체 63례 가운데 조직생검으로 진단이 확인된 경우는 28례였다. 다형성선종으로 진단된 20례 중 10례가 조직생검상 진단이 확인되었고, 처음 세포진단에서 다형성선종으로 진단되지 못한 경우는 20례 중 2례로써, 1례는 남성종양, 1례는 양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 Warthin씨 종양은 8

례 중 7례가 조직으로 확인되었고 세포진단이 달랐던 경우가 4례로써 그 중 3례는 branchial cleft cyst로, 1례는 점액표피양종양으로 오진되었다. 점액표피양암종 3례 중 2례가 조직확인되었으며 세포진단과 일치하였고, 선양낭포성암종 3례는 모두 조직생검으로 확인되었는데 세포검사의 진단에서 1례만 진단이 가능하였고 2례는 양성종양으로 오진하였다. 각 종양에 따라 진단의 정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형성선종은 진단의 정확도가 높고 Warthin씨 종양은 양성 변화를 흔히 동반하는 특징 때문에 진단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나 경험의 축적으로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점액표피양암종은 비교적 진단율이 높은 반면에 선양낭포성암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오진되었다.

10. 세침흡인 생검에 의한 유방종괴의 세포병리학적 진단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the Breast Lump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인애, 함의근

여성 유방에서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많은 예에서 양성병변인 경우가 많고 악성질환인 확률은 적으나, 이들 유방암이 여성암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기발견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암중의 하나로 이의 진단 및 조기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들 유방 종괴의 양성, 악성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유방조영술 및 초음파 촬영술등의 방사선적 검사가 이용되나, 이들의 확진을 위해서는 병리조직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다. 과거 이들의 확진을 위해 진단적 조직생검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이에 대체되는 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세침흡인 생검은 그 시술자와 진단하는 세포병리 의사에 따라 그 진단성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연구들은 본인들의 진단성적을 검토하고, 조직병리학적 검사가 시행된 예들에서 그 집단을 비교 검토하여 이 진단방법의 정확도를 높여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여 1992년 3월부터 1993년 5월 까지의 1년 3개월간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에서 진단된 유방의 세침 흡인 세포검사 541례의 성적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541례중 148례 (27.4%)에서는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309례 (57.1%)에서는 양성질환, 27례 (5.0%)는 비정형 상피세포증식, 57례 (10.5%)가 악성으로 진단되었다.
2. 이중 149례에서 조직검사 진단과 비교검토가 가능하였는데, 이중 81례 (54.4%)가 양성질환으로, 33례 (22.1%)가 악성질환으로 일치를 보였고 세포학적으로 비정형으로 진단되었던 17례 중 11례는 악성, 6례는 양성질환이었다. 위 양성으로 진단된 예가 3례 (2.0%), 위 음성으로 진단된 례가 15례 (10.1%)였다.
3. 세포병리 진단 성적과 조직검사 진단을 비교하여 보면 민감도는 74.6%, 특이도는 90%, 진단 정확도는 87.9%, 세포학적 진단이 악성이거나 비정형증식인 경우의 악성질환일 확률은 83%, 양성으로 진단한 경우 양성일 확률은 84.4% 였다.